

‘경남형 통합돌봄’ 1681명 신청… 도민 체감할 완성도 갖춘다

건강보험공단과 대상자 발굴 협업 18개 시·군 서비스 격차 해소 특성 맞는 ‘지역 특화 서비스’ 결합 합동점검반 편성해 운영 전반 점검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경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전 도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 34억원도 편성했다.

그 결과 1월부터 4월15일까지 경남형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3월27일부터 4월10일까지 복지부 통계 기준 551명을 포함해 총 1681명에 이른다.

특히 4월11일부터 3일(업무기준일) 만에 179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신청률이 32%로 급증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1, 2등급 대상자와 탈락 가정에 통합돌봄 신청 안내문 발송, 의무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경남도는 돌봄 대상자 발굴과 함께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군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표준화했고, 광역 단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개 시·군이 주거·보건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총괄관

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본인부담금 기준을 체계화하여 운영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전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을 완료해 대상자 발굴 시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었다.

사업 홍보도 현장 중심으로 확대했다. ‘경남 통합돌봄주간’ 운영을 통해 도와 전 시·군이 동시에 집중 홍보를 실시했고, 축제 연계 상담과 경로당 방문,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통합돌봄과장을 중심

으로 한 3개 반 14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월11일부터 4월22일까지 일정으로 도내 18개 시·군 본청과 305개 읍면동, 2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시·군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본청 현장 실사와 읍면동 표본 점검을 통해 TF 형태로 운영 중인 8개 시·군은 정규 조직 전환을 유도했고, 시·군 본청 및 일부 보건소에 60명의 전담인력 배치사항을 확인했다. 읍면동은 겸직 인력 324명이 시·군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통해 369명의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일자리정보망에 AI 기능 추가

부산시는 AI 기반 정보 추천 기능에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한 새로운 ‘부산일자리정보망’을 20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일자리정보망’은 지역 내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구축된 이후 연간 접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시민들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보 창구로 기능을 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이력 ▲희망 직무 ▲근무조건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AI가 적합도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일자리와 정책 정보 등을 추천해 제공하며, 비회원이라도 인공지능 통합 검색창에서 간단한 조건을 입력하면 지역 내 채용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홍보

경북이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주요 촬영지로 등장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은 경북도청 앞마당과 회랑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경북도는 도내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자 촬영지 발굴부터 섭외, 촬영 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촬영 시설을 국가 차원의 공공재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3년간 3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유치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덕군

5494개 일자리 창출 목표

경북 영덕군은 지역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공시제를 통해 15~64세 기준 고용률 75%, 취업자 수 1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총 549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영덕(경북)=김준한 기자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상반기 채용설명회’

경북교육청이 24일까지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과 학부모, 취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상반기 기업체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금오공고(20~21, 24일), 구미여상(22~23일), 라한호텔 경주(24일) 등 3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9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완료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구미시, 동유럽 농식품 시장 공략

부다페스트·오스트리아 빈에 구미시 농식품 해외개척단 파견 지역 유망 농식품 기업 4곳 참여



구미시 농식품 시장개척단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더블트리 바이 힐튼 포트리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 농식품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유럽 공략에 나선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물류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시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 ‘2026년 구미시 농식품 동유럽 해외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개척단에는 지역 유망 농식품 기업 4개사가 참여해 냉동김밥과 떡볶이, 떡, 양념꾸꾸미 등 K-푸드를 중심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회는 4월 21일 부다페스트, 4월 23일 빈에서 각각 열리며, 현지 바이어와 1대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사전 시장성 평가와 맞춤형 바이어 발굴, 통역 지원 등 상담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항공료 50%와 샘플 운송 초과 수화물 비용 일부도 보조하며, 상담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이어가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구미(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부산항 개항 150주년… ‘조선통신사 축제’

부산문화재단, 오는 24일부터 열여

부산문화재단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북항친수공원, 광복로 일원, 부산박물관, 국립부산국악원 등 부산 전역에서 ‘2026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는 글로벌 복합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주제는 ‘바다를 건너, 사람을 잇다’로,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와 세계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축제 첫날인 24일은 학술 행사로 문을 연다.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조선통신사 학회와 연계한 심포지엄 ‘조선통신사와 아시아 문화교류’가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는 기획전 ‘부산 개

항 150년: 바다를 건너간 녀석들’도 함께 열려 개항 이후 부산의 해양 교류 역사를 조망한다.

25일에는 북항친수공원에서 공식 개막식이 열린다. 한국 공연팀 ‘틀에디션’의 창작 공연 ‘일장춘몽’과 일본 시즈오카 ‘키요사와카구라보존회’의 전통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평화의 의미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이날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도 펼쳐진다. 시민·유학생·외국인·어린이 참가자와 지역 예술인, 전문 행렬단 등 약 500명이 참여하며 배우 유재명이 정사 역할을 맡아 행렬의 완성도를 높인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대표 팀 ‘유펙플레이’와 함께하는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가 열린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IT청년 정주형 원격근무 운영

지역 IT 인력 역외 유출 방지

부산시가 지역 청년 IT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다.

시는 청년 IT 개발자가 부산에 거주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마이크로 일자리 기반 정주형 원격근무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확산과 프로젝트 단위 원격 협업 증가 등 디지털 산업 변화에 대응한 조치다.

사업 일정은 21일 원격근무 지원 플랫폼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5월 중 참여 청년 개발자와 프로젝트 발주 기업 모집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

원 규모는 약 20개 내외의 프로젝트다.

지원 대상은 부산 외 IT 프로젝트 발주기업과 이를 수행하는 부산 청년 개발자·개발팀·스타트업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 개발자에게는 고용보험료·프로그램 구독료 등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 창업한 개인 개발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발주 기업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발판으로 외부 기업 프로젝트 발굴, 지역 청년 개발자 매칭, 원격 협업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부산형 원격 프로젝트 일자리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해군·해병대와 ‘AX 거점’ 조성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과 ‘밋업데이’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해군·해병대와 손잡고 해양·국방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

민·관·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AI 전환(AX) 과제 발굴 밋업데이’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6일 부산시와 해군이 체결한 ‘해양 및 국방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협약 체결 이후 ▲민·관·군 AI 기술 개발 협력 ▲공동 연구 개발 과제 발굴·기획 및 사업화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3월 3일부터는 해군·해병대 인력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본원에 상주하며 실무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밋업데이는 군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실증 가능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AI 기업·스타트업·연구 기관이 국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술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해군·해병대 수요 발표 ▲국방 AX 거점 추진 전략 발표 ▲공동 AX 과제 기획 및 기업 매칭 세션으로 구성되며 수요 발굴부터 협력 파트너 연결까지 한 자리에서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